

광주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단계적 전환

타 학교 학생들 참여 가능...체계적 훈련 받고 스포츠인 꿈 키워 광주시교육청, 월곡초·송정서초·충장중과 협약...9월부터 운영

학생들이 운동부 육성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전문 스포츠클럽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스포츠인으로 꿈을 키울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교운동부를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운영키로 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은 학령(學齡)인구 감소 및 학생선수 부족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25일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 계약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3교 학교장(월곡초·송정서초, 충장중), 교육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 학교는 각각 월곡FC U-12, 송정서FC U-12(이상 축구), 광주 충장베이비클럽 등 전문스포츠 클럽으로 전환, 오는 9월1일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운동부는 해체되고 선수들은 전문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하게 된다. 전문스포츠 클럽은 기존 학교의 체육인프라를 활용해 선수들을 육성한다. 시교육청이 전문스포츠클럽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학교운동부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동부는 육성학교 재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일반 스포츠 클럽보다 저렴한 비용을 내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전

문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에게 맞는 스포츠 종목을 탐색하며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스포츠클럽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 엘리트 선수 발굴 등 해당 종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학생선수 육성시스템은 종목 특성을 고려해 학교운동부 및 전문스포츠클럽 등 이원체제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전문스포츠클럽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관계자-클럽대표-학부모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교육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광주에는 모두 132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운동부가 있다. 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학부모, 학교관계자,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 교육공동체 합의를 토대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승우 시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연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아프간 장애인 여자태권도 선수 도쿄 패럴림픽 출전 길 열렸다

카불 탈출...유럽서 대기



2020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을 위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아프가니스탄 장애인 여자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23)가 극적으로 패럴림픽 무대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장애인체육계와 태권도계 관계자에 따르면 쿠다다디는 호주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육상 선수 호사인 라소울리(24)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관계자는 "이들은 현재 유럽의 한 국가에 머물고 있다"면서 "조만간 도쿄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다다디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면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패럴림픽 선수가 된다. 태권도는 이번 도쿄 대회에서 처음으로 패럴림픽 정식종목으로 치러진다. 애초 쿠다다디는 지난 16일 카불을 떠나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카불을 벗어나는 게 어렵게 됐다. 발이 묶인 쿠다다디는 최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대표로서 도움을 요청한다"며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게 목표다. 내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국제 사회에 간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도쿄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이들이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PC는 이미 아프가니스탄 장애인 선수들과 연대 의지를 밝혀 왔다. 24일 오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패럴림픽 개최식 선수단 입장 행사에서는 아프가니스탄 국가가 선수 없이 5번째로 입장했다. 쿠다다디는 도쿄 패럴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K44등급에 출전하기로 돼 있다. 해당 체급 첫 경기는 9월 2일 오전에 열린다. /연합뉴스



“불가능은 없다” 25일 열린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두 팔 없는 탁구선수’로 알려진 이집트의 이브라힘 하마투가 발로 공을 차 올린 뒤 입에 문 라켓으로 서브를 넣고 있다. 10세 때 비극적인 열차 사고로 양 팔을 모두 잃은 그는 누구도 실현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방법으로 경기를 하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세대 골프 스타’ 지나 김 LPGA Q스쿨 1위

미국 대표로 커티스컵 출전도

‘차세대 골프 스타’ 재미교포 지나 김(21·미국)이 아마추어 무대에서 종합무진 활약하고 있다. 듀크대 3학년인 김민경은 한국인 부모님을 둔 교포 2세로, ‘김민경’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다. “BTS(방탄소년단)에 환장해요”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어도 잘한다. 지나 김은 지난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웰리파이 토너먼트 스테이지 1에서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 메달리스트 영예를 안았다. 340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상위 95명에 들면 10월 열리는 스테이지2에 진출한다. 지나 김은 하루 뒤인 24일 영국 웨일스행 비행기를 탔다. 26일 개막하는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의 여자 아마추어 대항전인 커티스 컵에 미국 대

표로 출전하기 위해서다. USA투데이는 지나 김의 뻘뻘한 일정을 커티스 컵 관련 포인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지나 김은 커티스 컵에 미국 대표로 참가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다면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모든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의 꿈”이라고 열정을 보였다. 지나 김은 지난달에는 노스 앤 사우스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우승은 지나 김이 커티스 컵에 참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커티스 컵이 끝나면 안니카 대항 대회에 듀크대 대표로 나간다. 지나 김은 2019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챔피언십과 2021 애틀랜틱 코스트 콘퍼런스(ACC) 여자골프 챔피언십에서 듀크대 우승을 이끌었다. 2019년에는 여자골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공동 12위를 차지해 아마추어 최고 성적을 올렸다. /연합뉴스



US여자오픈 출전 당시 지나 김은 인터뷰에서 “나중에 프로선수가 돼서 세계 1등을 하고 싶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 극적 역전승

도로공사 꺾고 컵대회 4강 진출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가 한국도로공사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컵대회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GS칼텍스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2021 의정부-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A조 조별리그 도로공사와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2로 밀리다가 3-2(19-25 13-25 25-17 25-19 15)로 뒤집었다. 2승을 올린 GS칼텍스는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26일 조 순위 결정전 결과에 따라 준결승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GS칼텍스는 1세트에서 2020 도쿄올림픽 4강 진출의 주역인 상대 팀 공격수 박정아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중앙에선 상대 팀 센터 정대영에게 블로킹으로만

4점을 헌납하는 등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GS칼텍스는 주포 강소휘가 1세트에서만 범실 3개를 기록하는 등 부진했다. 승부처는 5세트였다. 12-12 접전에서 유서연이 블로커 터치아웃 공격을 성공했고, 이후 문지윤이 박정아의 공격을 블로킹하면서 천금 같은 점수를 올렸다. 14-12에서 도로공사는 다시 박정아를 앞세워 공격했는데, 이를 김유리가 막은 뒤 강소휘가 디그에 성공해 공을 살렸다. 이후 유서연이 침착하게 오픈 공격을 성공하며 길었던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뒤늦게 살아난 강소휘는 18득점을 기록해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문지윤이 15점, 유서연이 13점으로 많은 점수를 올렸다. 도로공사는 박정아 홀로 31점을 기록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인질
2관	인질
3관	싱크홀
4관	인질
5관	레미니센스
6관	싱크홀
9관	모가디슈
7관	씨네커플 귀문
8관	씨네커플 싱크홀, 여름날 우리, 울드 다이노 마이 프렌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
제1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낭독공연 양림
일시 : 2021. 08. 30(월) 16: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I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2021. 09. 06(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귀문